

영농 소각 활동에 대한 영농인의 의식 분석  
Agriculturist Opinion Analysis of Forest Fire by Farming Activities

박홍석<sup>1)</sup>·이병두<sup>2)</sup>·이시영<sup>3)</sup>·이명보<sup>4)</sup>  
Houng Sek Park·Byungdoo Lee·Si-young Lee·Myung Bo Lee

요 지

영농소각은 한국에서 산불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영농소각행위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, 영농소각의 시기, 소각장소, 소각물질 등에 대한 의식을 구명하였다. 조사결과, 전국적으로 종사자들은 영농활동이 시작되는 3월과 4월 흐린 날 오후 산림연접 100m 이상의 지역의 논, 밭두렁에서 잡초제거를 위해 영농소각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, 이러한 영농소각의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관리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을 통해, 소각허가제, 마을 별 공동소각과 같은 정책을 통해 현재의 영농인 요구에 부응하면서, 정책의 홍보와 신기술의 교육 강화, 친환경적인 쓰레기 처리 방법의 보급을 통해 장기적으로 영농소각을 대치시키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

핵심용어: 산불방제, 영농소각, 의식분석, 산불예방정책

- 
- 1) 정회원·동국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·박사과정·(E-mail: parkhs08@naver.com)
  - 2) 정회원·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·교수(교신저자)
  - 3) 정회원·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제연구과·연구사
  - 4) 정회원·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제연구과·연구관